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가입 안내

- 정부에서는 WTO의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정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사법 개정(2011. 5. 30)을 통하여 UIA권고 기준에 의한 교육, 실무수련, 자격검증, 자격등록, 갱신등록, 계속교육을 근간으로 한 『건축사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건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과 등 주요한 건축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건축사등록원』, 『건축사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계 발전을 위한 건축제도의 개선 및 정책 개발, 건축정보 제공,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협회 정관과 회원신고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등록을 하면 건축사사무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등록건축사는 건축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여 건축계가 하나 되는 건축문화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종류

정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협회에 입회한 자
준회원	건축사법에 따라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사와 외국에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협회에 입회한 자

■ 회원혜택

- 건축전문지 월간 <건축사>, 건축계 정인지 격주간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제공
- 건축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협회주관 각종 전시회 참여 기회 제공
- 건축관련 법령자료 제공
- ARCASIA 등 국제건축전 출품 기회 부여
- 회원복지서비스 혜택
- KIRA NEWS 제공
- 건축관계 법령 질의·상담 및 대정부 건의
- 해외의 각종 건축관련 기술정보 및 국제행사 참여 기회 제공
- 건축사 실무교육 정보 제공
- 정부포상 추천

■ 정회원 가입절차

- 건축사 자격등록 후, 해당 시·도건축사협회 신고서류 제출 및 회비납부
- 제출서류 : 정회원 신고서, 건축사 자격등록증(전자문서), 반명함판사진 2장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추가 서류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 회비안내

1. 회비의 종류 및 금액

구 분	납 부 내 용	납부처
정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회비 : 300만원(입회시 1회) • 월정회비 : 3만원(매월) • 시·도건축사회 회비(입회비 및 월정회비) : 해당 시·도건축사회 회칙에 따름 	시·도건축사회
준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회비 : 50만원(가입시 1회) • 연회비 : 6만원 	

2. 회비 사용처

- 입회비 및 정회원(준회원) 회비 : 건축문화발전 및 회원권익증진, 협회조직관리 운영자금 등

■ 본협회 및 시·도 건축사회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구 분	전화번호	FAX번호
본협회	(02)3415-6800	(02)3415-6855	대 전	(042)485-2813~5	(042)485-2818	충 남	(041)338-4088	(041)338-4188
서 울	(02)581-5715~8	(02)523-2284	울 산	(052)274-8836	(052)268-8837	전 북	(063)251-6040	(063)251-6048
부 산	(051)633~6677	(051)634-2966	세 종	(044)862-6336	(044)862-6226	전 남	(061)285-7563~4	(061)285-7567
대 구	(053)753-8980	(053)756-9049	경 기	(031)247-6129~30	(031)242-7072	경 북	(054)859-8170	(054)859-8175
인 천	(032)437-3381~4	(032)437-3385	강 원	(033)254-2442	(033)255-2083	경 남	(055)246-4530	(055)245-4530
광 주	(062)521-0025~6	(062)528-0026	충 북	(043)223-3084~6	(043)223-3089	제 주	(064)752-3248	(064)756-3248

* 회원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도건축사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등록실적팀(☎ 02-3415-685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fter 코로나19,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혼돈의 시간

After COVID 19,
Chaotic times to set new standards

글. 홍성용
Hong, Sungyong
본지 편집국장

이렇게 빨리 세상이 변할 수 있을까? 단 몇 개월 만에 전 세계에 확산된 슈퍼 전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반합의 갈등을 겪으며 진화해온 모든 환경을 흔들고 있다. 잔인한 전쟁을 겪고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구축된 세계 연맹 체제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세계 보건 안전의 공동 조직인 WHO의 권위는 몇몇 거대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전에도 세계 조직들은 몇몇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놓여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처럼 조직을 흔들 만큼 충돌한 적은 없었다. 한편 국경은 폐쇄됐다. 또 극심한 자국 이기주의 탓에 운반 중이던 마스크를 날치기 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생전 앞에서 그렇게 인간의 집단 이기주의가 드러나고, 영화나 교과서에서 나올법한 희생 장면들이 속출하는 중이다.

21세기 산업으로 여겨지던 일상에서의 '국경 넘기'는 이제 문턱이 높아졌다. 과거처럼 무방비로 국경을 넘는 것은 한동안 쉽지 않을 것 같다. 국경만 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국 내 이동도 제한된 경우가 상당수다. 전시 체제도 아니건만 이동 제한령이 아무렇지 않게 시행되고, 경제 활동이 마비된 경우도 있

다.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 이러한 상황들은 경

제적 취약 계층들에게 치명적인 두 번째 전염병이다.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인 경제적 저소득층은 생계, 의료, 환경 모든 것에서 소외

됐다.

21세기 산업의 총아로 여겨지던 공유의 개념은 순식간에 피해야 할 개념



이 되었고, 온라인 경제 체제는 순식간에 일상 안으로 들어왔다. 재택근무 역시 지난해에 확대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번 전염병 사태로 급속하게 익숙한 경제 활동으로 안착되는 중이다. 이런 변화는 아닐로그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경제적 계층 간 극단화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현금 지급'은 우파 정치의 대표적 인물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선언 이후 세계적으로 확대된 정책이 됐다. 이미 수많은 나라가 이를 실행했다. 이쯤 되면 전 세계가 완전한 비상체제다. 더 우려되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해결책이 등장해도 새로운 전염병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향후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당장 건축과 도시에 대해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온다. 그중 우리의 시선을 가장 끄는 것은 공동 주거의 변화와 단독 주택 선호, 개발 단위 주거 공간의 규모 확대 등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을 구성하는 슈퍼 아파트 단지의 변화에서부터 가족 간 전염 예방을 위해 공간 분리가 용이한 규모가 큰 집을 선호한다는 예측까지……. 과연 그럴 것인가? 무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이상 개별 단위 주거 규모의 확대는 결국 소득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단지형 아파트는 작은 도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는 일종의 주상복합형으로, 도로로 분리된 개념으로 변화할 것이다.

아마도 이런 백가쟁명식 논의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될 듯하다. 그렇다면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고 직업으로 삼고 있는 건축사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까? 이제부터 우리의 숙제다. 시대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와 건축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 아닐까?